



“올림픽 정말 성공적으로 치뤄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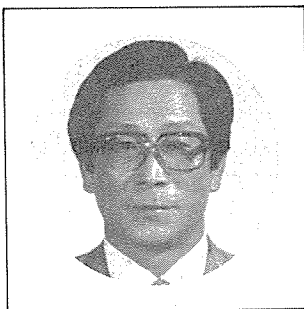
올림픽후 새 次元의 國民體育진흥책 마련돼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한다는 것은 우리 온 겨레에게 주어진 지상명제입니다. 또한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발휘하여 국제스포츠대열에서 두각을 타내야 하는 것도 당연과제이지요.』

韓國體育學會 宣炳基회장(고려대 사범대 체육학과교수)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88서울올림픽이 전 人類에겐 영광과 평화를, 우리 民族에겐 大化습과 전진을 가져다줄 세계인의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매진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연다.

宣회장은 88서울올림픽 대회에서 주최국으로서 상위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現시대적 측면에서 볼때 스포츠과학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스포츠경기력의 향상은 관련된 학문의 발전과 그 학문으로부터 얻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종 스포츠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스포츠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력향상을 위한 과학적 훈련방법의 개발은



◇ 宣炳基회장

물론 이의 현장적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체육선진국과의 국제학술교류를 증진해 나감으로써 국내스포츠과학수준을 향상시켜 최신훈과 체육현장을 자연스럽게 접목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다.

『스포츠과학은 인간의 신체활동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人間科學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력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은 여러분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인간능력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宣회장은 경기력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분야는 아직도 개발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해결에 체육학도는 물론

행정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학문분야가 다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에 따라 스포츠과학분야도 연구 영역이 광범위하고 연구분야 또는 세분화되어가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宣회장은 종래의 체육학이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된 반면 스포츠과학은 스포츠에서부터 교육, 국민건강등 체육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교과과정의 보완 및 개선등으로 스포츠과학 발전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체육철학 분야를 비롯, 체육사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리학, 체육행정학, 체육교육과정, 운동생리학, 생체역학, 건강교육, 체육측정평가, 체육통계, 레크리에이션, 무용, 초등체육, 중등체육, 대학체육, 군체육, 사회체육, 경기분야등 19개 전문연구회를 구성, 전문 학술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고 소개한다.

『1955년에 설립된 韓國體育

學會는 우리나라 체육계로서는 독보적인 순수학술단체로 학술연구활동지원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세미나 개최와 학술발표회, 학회지발간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체육진흥과 스포츠과학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宣회장은 86년도에 제10대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학회회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해 주는 것과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구축, 독자적인 학회사무실 마련, 후학들을 위한 體育學書誌총람 발간, 국제 학술교류 증진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체육학서지총람 발간사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겠다고 밝힌다.

학회는 특히 체육선진국과의 최신이론 및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각종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학술교류를 증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일본, 서독등지의 스포츠관계자를 초청, 「우수선수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생체역학적 접근 방법」이란 주제로 생체역학 국제세미나를 한바 있다.

또한 올림픽기간동안 「서울 올림픽 스포츠과학학술대회」를 개최, 「체육의 새로운 전망」이란 주제로 「체육사」를 비롯 「스포츠사회학」 「체육행정」 「특수교육」 「스포츠의학」 「운동역학」등 12개분과에서 체육 및

스포츠의 역사에서 부터 우주공간에서의 운동생리등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과학 전반에 걸친 최신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학회로서는 88올림픽경기 못지않게 스포츠과학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입니다.』 宣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는 이 학술회의를 통해 학문적인 시야를 넓혀 학문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宣회장은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회의장 등 충분한 시설과 매끄러운 회의진행등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림픽을 치루고 난 후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그동안 쏟았던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宣회장은 우리가 다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Before Olympic」 못지않게 「After Olympic」도 중요하므로 올림픽을 치른후 새로운 차원의 국민체육 진흥책을 마련, 유효적절하게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금년내로 청소년육성법이 발효되면 청소년 스포츠 내지는 사회체육문제가 또 하나

의 과제로 등장될 것이므로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지원시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와함께 외국의 경우와 같이 건물내에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는 방안도 강구, 국민들이 스포츠에 친근감을 갖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宣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體育部의 발족과 더불어 체육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고조, 스포츠의 과학화, 우수선수 및 지도자양성, 시설확충,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등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유도해 나갈으로써 전국민의 스포츠 생활화 및 대중화 시대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現代 스포츠의 본질은 人間暢達에 있으므로 스포츠과학은 諸科學과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연현상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간의 한계능력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宣회장은 스포츠과학은 인접학문이나 첨단 과학기자재가 발달하므로써 장족의 발전을 이룩해온게 사실이나 스포츠과학이 인간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스포츠기량향상을 위한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 記>